

막장이냐 아니냐 ... ‘황금빛 내인생’ 화제

22회 기억상실증 장면 갑론을박

시청률 37.9%로 올해 최고

“기억상실이면 이제 안볼거다”(네이버 아이디 ‘jr19 * * * * *’) “기억상실 설정 절 ~대 안나온다. 작가는 우리의 이런 반응 노린 거?”(js3c * * * * *)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렇게 성질나게 해야 시청률 짹 짹 오르거든. 자살하러던 예가 갑자기 갑질하고 있어”(ardo * * * * *)

드라마의 내용을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게 오랜만이다.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지난 12일 방송한 22회의 마지막 장면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고조시키며 온라인에서 댓글 홍수를 낳고 있다.

11일 방송된 21회 마지막 장면에서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 서지안(신혜선 분)이 22회 마지막 장면에서 텅빈 눈빛으로 바닷가에서 ‘발견’되자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다. 서지안의 운명이 궁금해 12일 TV 앞에 모여들었던 시청자들은 이날 마지막 장면에서야 그가 등장하고,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그의 표정이 클로즈업되면서 끝나자 시청소감을 토해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 덕에 ‘황금빛 내 인생’은 22회에서 시청률 37.9%를 기록하며 올해 방송된 TV 프로그램 중 최고의 성적을 냈다. 전체 50회 중 절반만 안 가서 거둔 성과다.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 8월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의 36.5%였다.

◇ 시청률 가파르게 상승 ... 40% 바라본다
지난 9월 2일 19.7%로 출발한 ‘황금빛 내 인생’은 2회에서 20%를 돌파한 데 이어 8회에서 30%를 넘어섰다. 이어 방송 한 달여 만에 35%를 돌파하더니 22회에서 37.9%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가파른 상승이다. 전작인 ‘아버지가 이상해’는 22회에서 30%를 넘어섰고, 종영을 한주 앞둔 50회에서야 35%를 돌파했다. 그



보다 앞서 방송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40회에서 35%를 넘어섰다. 남녀노소가 시청하는 KBS 2TV 주말극은 웬만하면 30%를 넘기기 때문에 시청률 30%로는 드라마의 성과를 속단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로 인해 ‘황금빛 내 인생’이 최근 방송가에 불가능한 숫자로 인식돼온 시청률 40%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금빛 내 인생’의 배경수 KBS CP는 14일 “시청률이 너무 빨리 올라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할 이야기를 다 써버린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작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은 당분간 더 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막장’의 경계 타고 질주 ... 미니보다 빠른 전개
‘황금빛 내 인생’은 ‘막장 드라마’의 경계선을 타고 질주 중이다. ‘막장 드라마’의 가장 흔한 소재인 출생의 비밀에서 출발했지만 악인도, 탐욕도 없다. 주인공 서지안은 ‘흙수저’ 탈출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강했고 절박했지만, 손에 들어온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 바로 뒤로 물러난다.

정성효 KBS드라마센터장은 “재벌, 바뀐 딸, 기른 정, 신분 넘어서는 러브라인 등 고전적 소재를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변주한 작가적 역량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배경수 CP는 “초반에는 막장성 코드가 있어 비난도 나왔지만 결국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절대 악을 형상화하거나 신분상승 욕망에 휩싸인 신데렐라가 등장하는 게 아니었다”며 “모든 인물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어 현실 공감을 강하게 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생의 비밀을 우려먹는가 했던 의혹은 해소됐는데, 이번에는 기억상실증 의혹이 대두되며 또다시 막장 논란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눈빛을 보면 백퍼 기억상실이야”(t1sg * * * * *), “정말 누구세요? 하면 안볼테야?”(gheh * * * * *), “제발 기억상실증만 아니길. 막장으로 가지 말길”(jib2 * * * * *) 등 서지안이 기억상실일까봐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런 와중에 “소현정 작가는 뻔하게는 안쓰니 기억상실은 절대 아닐거. 실어증이라나?”(glob * * * * *), “지금까지 작가 성향을 봐서 그렇게 쓰겠나? 왜 그리들 센스가 없지?”(youn * * * * *) 등 작가를 믿는다는 글도 이어진다.

미니시리즈보다 빠른 전개도 드라마 시청층을 확대한다. 주말극 특유의 느린 템포가 아니라, 웬만한 미니시리즈보다 빠른 속도감이 젊은층도 빨아들이고 있다.

연습뉴스

MBC 김장겸 사장 해임 의결 ... 예능 정상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사장 해임을 의결한 가운데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번 주부터 차례로 정상 방송한다.

MBC는 14일 “오는 15일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17일 ‘나 혼자 산다’, 19일 ‘미스터리 음악쇼-복면가왕’과

‘오지의 마법사’, ‘섹션TV 연예통신’이 모두 정상적으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무한도전’과 ‘소 음악중심’은 오는 25일부터 정상 방송한다.

MBC 관계자는 “일단 파업 전에 찍어둔 분량으로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며 제작진이 새로운 촬영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노조)는 전날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진행해온 파업을 풀고 제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도·시사 부문의 경우 파업은 풀지만 제작 거부 상태로 전환돼 방송 파행이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 라디오는 ‘신동호의 시선집중’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연습뉴스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비에서 참배하고 있는 탐방단 모습.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역사 여행

광주MBC 창사 특집 ‘아리랑로드 7332km’ 내일 방영

1937년 소련의 연해주에 거주하는 약 17만 명의 한인들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다.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열차 이주와 허허벌판 황무지에 정착하는 과정은 혹독하고 비참했으며, 결국 수많은 한인들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일제 강점기 조국을 잃은 한인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80년 전 아픈 역사다.

16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광주MBC 창사 특집다큐멘터리 ‘아리랑로드 7332km’(연출 이경찬, 작가 손선지, 촬영 이경섭)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민 약 4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까지 역사 현장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낸 프로그램이다.

이들 탐방단의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을 조명하고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강제이주했던 고려인의 후손 4000여 명이 광주 월곡동에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광주와 고려인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강제이주 열차 탐방단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연해주부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강제이주의 역사 길 7332km를 따라가며 80년 전 고려인의 아픈 역사를 체험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통해 우애를 다지고 동질성 회복을 시도했다. ‘아리랑로드 7332km’에는 이들 탐방단과 동행하며 고려인의 삶의 흔적과 역사를 알려주는 로드 다큐 형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탐방단과 제작진은 열차 탐승 시간만 135시간, 7332km에 달하는 적지 않은 여정 동안 고려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연해주의 신한촌, 구 개척리, 혁명광장, 강제이주 시발역 라즈돌리예역, 최재형 선생 거주지, 고려인 문화센터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에서는 바스토베 무역, 한글 학교, 고려문화센터, 교민신문사 등 중앙아시아 황무지에 버려져야 했던 고려인들의 처참했던 현장을 담아낸 것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경찬 PD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세 나라를 거쳐 가는 횡단열차에 동행하여 강제이주의 처참했던 상황을 체험하고, 역사 속 한민족의 아픈 이름을 다시 떠올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은재기자 e61621@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VJ 특강대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넥스트 휴먼 (재)	50 매드독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데이트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건강혁명			55 닥터 365
2	10 미래기획 2030 -기초과학에 말을 걸다	00 생활의 발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0 특집다큐 음식에 맛을 더하다, 우유의 유혹 55 UHD 한식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텔레몬스터 (재)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세상기록 48 (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창시특집 UHD다큐 나를 향한 빅 퀘스션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숨터 (재)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2 15 켈리고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벌머느리 (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밤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닥터 365 0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아리랴다 55 지식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특집다큐 2부작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할까?	50 내 남자의 비밀 (재)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피하는 남자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하하랜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40 KBS 파노라마-히말라야인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 독	00 밤상 차리는 남자 돌아보기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문화의 향기 50 동행	10 고백부부	1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2부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4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11월 15일 (음 9월 27일 丙午)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스페인 맛에 빠지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웅강한 소방차 레이 07:30 똑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8:45 한글이 아호2 09:00 레이디비그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대지고기조림과 시금치 알리오 올리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체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미래강연 Q (유대인과 질문) 14:30 최강전사, 미니특강대 15:00 마사랑 곶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헤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한글이 아호 2(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2(재) 17:15 웅강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눈이 내리면 시베리아 영구동토 툰드라> 21:30 한국기행 <가을에 더 울주 산도 물도 내 마음도 단풍>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이동식 가게 제작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체널e 24:30 미래강연 Q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60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자는 아예 만들지 말라. 72년생 근분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84년생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들라. 행운의 숫자 : 03, 79	午	42년생 부담이 될 수 있다. 54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66년생 희망적인 구상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78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90년생 지나치다 보면 관계가 건조해 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55	
丑	49년생 가을의 결실이 예견되는 판도이 파종하자. 61년생 잘 다루지 않으면 부담을 안게 된다. 73년생 모를지기 정성을 다한다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85년생 애초의 상황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81, 69	未	43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55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67년생 우회하여 표현하는 것이 무리 없겠다. 79년생 한 시 바빠 벗어나야 한다. 91년생 근분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69, 04	
寅	50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62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74년생 오늘이야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86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47	申	44년생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56년생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68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80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6, 00	
卯	51년생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63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75년생 여태까지 시련을 돌리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87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0, 36	酉	45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니라. 57년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경색되어 있더라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69년생 대세에 따름이 백 번 나를 것이다. 81년생 지난날의 노고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28, 18	
辰	52년생 상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기에만 하느니라. 64년생 세심하게 살펴보는 진중함을 필요로 한다. 76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88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다. 행운의 숫자 : 65, 27	戌	46년생 어차피 맞이해야 할 도량이라면 코스를 정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 70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패념치 말라. 82년생 천하가 다 달라서야 두 말하면 잔소리다. 행운의 숫자 : 43, 80	
巳	53년생 여태까지 품어 왔던 자신의 소신을 허심탄화하게 밝힌다면 쉽게 융합될 수도 있다. 65년생 지속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77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89년생 미래를 향해서 새물결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7, 74	亥	47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가급적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 71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파악하자. 83년생 결혼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7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